

# Anthony J. Tomasino 박사, 예수 이전의 유대교, 세션 13, 헤롯 대왕

© 2024 Tony Tomasino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안토니 토마시노(Anthony Tomasino) 박사와 예수님 이전의 유대교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13회, 헤롯 대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구약 중간기의 끝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신약성경의 시대에 이르렀고 이 시대의 가장 다채로운 인물 중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션에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요세푸스가 헤롯의 개인 비서였던 다마스커스의 니콜라스의 기록을 그의 개인 역사가로서 그의 많은 작업의 기초로 사용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헤롯 대왕에 대해 알려진 대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가 위대했든 아니든 그것은 관점의 문제입니다. 헤롯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신약성경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그를 베들레헴 주변의 두 살 미만의 아이들이 있던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위협에 맞서 왕국을 지키려던 헤롯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의 학살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그것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그것에 문제가 없습니다. 헤롯이 행한 다른 일들과 그가 연루된 사건들에 대해 읽을 때, 그가 가졌던 편집증의 종류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 때, 나는 두 사람의 죽음이 그 당시에는 열두 명 정도의 유아가 그의 능력 밖에 있는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고한 사람들의 학살이 동화에 불과하다는 생각, 아니, 제 생각에는 그것이 그가 특히 말년에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실제로 보여주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실제로 자신의 야망과 편집증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궁금합니다. 저는 헤롯 대왕의 정신 분석적 프로필을 갖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어린 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그를 불안하면서도 완전히 뻔뻔스럽고 어쩌면 거칠게 만들었는가에 대한 좋은 단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물론 우리는 이미 그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이두매아의 총독 안티바테르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예돔 출신이었기 때문에 좋은 유대인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예돔 사람이 7대까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상기시켰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돔 사람들은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갈릴리 총독으로 임명되었으나 갈릴리 사람들의 반역을 잔혹하게 진압하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을 학살하여 즉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헤롯은 매우 강력한 사람, 뛰어난 기병, 훌륭한 전사로 묘사되며, 헤맨 유형의 영역 통치자에게 필요한 모든 놀라운 자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들은 대로 안티고노스가 기원전 40년경에 유대를 침공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예루살렘의 왕과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었고 헤롯은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의 비행 중 첫 번째 목적지는 이집트였으며 아마도 그곳에서 마크 안토니를 찾을 것으로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Mark Antony는 이미 떠났습니다.

Mark Antony는 이미 로마로 돌아 왔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해야 했던 일은 약간의 돈을 빌려야 했고, 그는 많은 돈을 빌렸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많은 돈을 빌려 로마로 가는 길을 샀습니다.

이제 그는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그의 돈을 좋은 일에 사용했습니다. 마크 안토니입니다. 그는 또한 Mark Antony와 함께 청중을 얻었습니다.

물론 그는 뇌물을 주었고 마크 안토니우스는 자신을 유대 예루살렘에서 어느 정도 통치자의 역할로 다시 데려오면 더 많은 돈이 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글쎄요, 마크 안토니우스는 헤롯을 위해 아마도 헤롯의 가장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을 해냈습니다. 그는 로마 원로원 앞에 가서 안티파테르의 아들 헤롯을 불러와서 이 사람을 유대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헤롯이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크 안토니우스가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로원은 이를 받아들여 기원전 40년에 헤롯을 유대 왕으로 임명했습니다. 이제 유대 왕으로 임명되는 것과 실제로 유대 왕이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인들은 그를 기꺼이 임명할 의향이 있었지만 그 시점에서 그를 유대 왕으로 세우기 위해 어떤 군대도 투입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헤롯은 이 시점에서 쓸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로 돌아와서 가까스로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결국 그는 필요한 군대를 제공하도록 로마인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고, 자신과 협력하기를 전혀 거부하는 총독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총독은 안티고노스로부터 뇌물을 받고 있었고, 그가 안티고노스로부터 돈을 받고 있는 한, 그는 헤롯 대왕이 왕이라고 적혀 있는 그 작은 종이 조각을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인들은 그를 위해 중재해야 했고 총독에게 헤롯이 왕이 되고 대제사장이 되는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라고 명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 군대와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그곳을 장악하자 그들은 안티고누스를 직위에서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속되는 흥미로운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시점에서 안티고누스가 실제로 처형되었는데, 이는 로마인들이 일반적으로 왕에게 행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흥미로운 양보를 한 것 같았지만, 이 사람이 그렇게 자주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자신의 무능력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안티고누스를 비난할 수는 거의 없습니다. 로마인들이 문을 열어 두면 그는 그냥 도망쳐 나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헤롯이 거의 즉각적으로 결정한 일 중 하나는 헤라클리우스의 손녀인 마리암네와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는 왕좌와의 연결을 확보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정당화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헤롯은 이미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이때 또 다른 아내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그의 다른 아내, 첫 아내도 아들과 함께 추방당했습니다. 분명히 그는 이 시점에서 실제로 이혼하지는 않았지만 마리암네는 정말로 한동안 그의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의 통치는 일반적으로 세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를 통합 기간이라고 합니다. 기원전 37년부터 27년까지입니다.

그가 자신의 왕국을 통제하는 데는 약 10년이 걸립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온갖 파벌이 있고, 서로 싸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있고, 그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고, 헤롯은 고양이를 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통일기를 거쳐 기원전 27년부터 기원전 13년까지 번영기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우리는 국내 혼란의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글쎄요, 여기서 이 시간 내내 그것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헤롯 통치의 마지막 해를 특징짓는 주요 특성인 것 같습니다. 그는 집과 가족 모두에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기원전 4년 그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래서 통합. 그의 왕국을 강화하려는 노력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헤롯은 여러 적대 세력을 이겨내야 하는데, 여기서 제가 이야기할 네 가지는 유대 민족, 귀족, 남아 있는 하스몬 왕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롯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클레오파트라 여왕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유대 사람들의 쇠고기는 무엇입니까? 글쎄요, 우선 그들은 그가 정말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는 절반만 유대인입니다.

그 사람은 일종의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그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유대인들은 그를 분개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무자비함은 그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왕위를 찬탈했다고 느꼈습니다. 여기에는 실제로 두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왕좌는 하스몬 가문의 것이고 그는 하스몬 가문이 아니기 때문에 왕좌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예루살렘의 왕좌는 다윗 왕의 가계에 속하며, 왕위를 차지하는 사람은 다윗의 후손이어야 한다는 보다 전통적인 가계가 있었습니다. 누구도 왕좌가 이두매 사람에게 속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유대의 왕이 된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의 일화뿐만 아니라 그분이 완전히 야만적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폭동을 진압하신 그분의 무자비함에 대한 추가 일화도 잔혹함으로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계엄령을 강요했습니다.

그의 통치 중 어느 시점에서 그는 모든 종류의 공개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거리에서 집회를 하는 것이 발견되면 그들은 즉시 해산되거나, 끌려가서 심문을 받거나, 심한 구타를 당하거나 등등을 당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와 그의 통치에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Alexander Janius에게 유자를 던진 것처럼 그에게 유자를 던지지 않을 것입니다. 귀족들은 나름의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산헤드린은 유대의 대부분을 통제하고 있었으며 일종의 꾸준한 존재였습니다.

헤라클리우스와 아리스토불루스, 아리스토불루스의 아들들에게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이 모든 일에서 변함없는 유일한 사람은 일을 함께 유지하려고 노력해 온 산헤드린이었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은 상당히 큰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가비니우스가 왕국을 다섯 개의 행정 구역으로 나누었을 때 각 구역에는 자체 통치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통치 의회는 대제사장 자신보다 더 많은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인들에게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근육을 구부리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글쎄요, 헤롯은 산헤드린 권력을 제거했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그들의 모든 시민권을 빼앗았습니다. 헤롯은 실제적인 통치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책임은 그와 함께 멈췄다. 그리고 산헤드린은 여전히 집회를 허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사 문제와 법률 문제에 관한 한 산헤드린은 그러한 종류의 문제를 처리할 힘이 없었습니다. 헤롯이 다루어야 했던 귀족의 또 다른 부분은 살로메라는 이름의 여인인 자신의 누이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일곱 베일의 춤을 주는 살로메와는 다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살로메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정말 야심찬 여성입니다.

헤로데 가문, 헤롯과 그의 누이는 부유했고, 안티파트로스는 부유한 족장이었지만, 특별히 교양 있는 사람들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일종의 부유한 농부들과 비슷했습니다. 표면 아래에 일종의 긁힌 자국이 있습니다.

베니어판이 그다지 깊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자비한 경향이 있었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어느 정도 질투가 있었습니다.

Salome은 Hasmoneans에 대해 매우 분개했으며 특히 Mariamne과 Mariamne의 어머니에 대해 분개했습니다. 그래서 살로메는 끊임없이 헤롯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유대의 또 다른 여왕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직접 눈여겨보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누가 알아? 그래서 Hasmoneans와 그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이 사람들과 겪고 있던 문제 중에는 자기 시어머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헤라클레스의 손녀인 마리암네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어머니 알렉산드라는 헤롯을 노골적으로 멸시했습니다. 그녀는 이 남자를 전혀 경멸하지 않았고 그를 자기 딸보다 못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시어머니에게는 일종의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인적인 과대망상증의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선을 따라 가볍게 밟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헤롯이 그녀를 방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녀에게는 매우 강력한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실제로 그 일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는 클레오파트라였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클레오파트라 때문에 알렉산드라에 대해 별로 많은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클레오파트라도 그를 좋아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왕이 된 직후에 안전하고 자신의 개인 권력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일종의 평민인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글쎄, Alexandra는 이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대신 마리암네의 형제였을 자신의 아들이 대제사장으로 임명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사람은 16세의 소년이었는데, 겉보기에는 아주 잘 생긴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은 그가 대제사장으로 임명되는 것을 진심으로 찬성했습니다. 아시다시피 16세라는 나이는 대제사장으로서는 너무 어려 보이지만 그 뒤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라는 그것을 원했습니다.

헤롯은 그 생각을 싫어했습니다. 물론 그는 자신이 헤롯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싫어했습니다. 글쎄, 이로 인해 약간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근육을 풀었고 마크 안토니우스는 헤롯에게 젊은 동료인 아리스토불루스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 젊은이가 사고를 당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그가 더운 여름날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멋지고 멋진 수영장을 지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새 대제사장이 두 하인과 함께 연못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들의 거친 주거 환경은 너무 거칠어졌고, 그 젊은이는 익사했습니다. 예.

알렉산드라는 피비린내 나는 살인을 외쳤다. 완전 살인은 아니었지만 확실히 살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물론 클레오파트라에게 불평했고, 클레오파트라는 마크 안토니에게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마크 안토니는 아마도 제가 그랬을 겁니다.

어쨌든, 그의 시어머니인 그의 아내 마리암네도 그에게 약간의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마리암네는 남편에게 별로 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략결혼이자 중매결혼인데 과연 그녀가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는지 의문이 든다. 이제 헤롯은 그녀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는 마리암네에게 전적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녀가 같은 방식으로 그의 사랑에 보답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에게 상처를 입혔고 또한 그 자신의 불안감에 약간의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서 클레오파트라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물론 그녀는 알렉산드라와 친구이지만 팔레스타인을 자신의 왕국에 추가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오, 마크 안토니(Mark Antony), 나에게 팔레스타인을

주실 수 있나요? 그녀는 왜 팔레스타인에 그토록 관심을 가졌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주된 이유 중 하나는 팔레스타인의 농산물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거기에 있던 대추야자 나무는 중동 전체에서 가장 좋은 대추야자를 생산했습니다. 그 날짜를 파는 것을 죽여라. 여기는 정말 좋은 곳이에요.

코를 주목하세요. 이것은 아마도 지금까지 살았던 가장 아름다운 여성 중 한 명일 것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움 기준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코는 매우 크고 눈에 띄지만 로마인들에게 큰 코는 아름다움과 힘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철학자이자 수학자 블레즈 푸스칼은 다음과 같은 작은 농담을 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더 작았더라면 전 세계의 얼굴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인용문.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녀는 매우 매력적이고 고상한 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율리우스 카이사르뿐만 아니라 마크 안토니우스도 유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크 안토니우스로부터 팔레스타인의 여러 핵심 땅을 받았습니다.

물론 헤롯은 클레오파트라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땅을 잘라서 분할하는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 문제는 기원전 31년 악티움 해전으로 인해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자살하게 되면서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헤롯은 이제 동네에 새로 태어난 아이, 즉 결국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얻게 된 옥타비안이라는 이름의 친구에게 자신을 축하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 문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또 다른 작은 문제, 즉 그의 왕국에 긴장의 또 다른 잠재적인 원인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늙은 대제사장인 히르카누스(Hyrcanus)가 아직 주변에 있었습니다. 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그를 위협적인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히르카누스를 살해했습니다. 이제 헤롯 통치의 번영하는 시대가 시작됩니다. 헤롯은 자신을 마크 안토니우스의 배신의 희생자로 아우구스투스에게 소개했습니다.

날 봐.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Mark Antony는 나를 나쁘게 대했습니다.

물론 아우구스투스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 점을 확실히 이해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그런 식으로 대합니다. 마크 안토니가 클레오파트라의 손가락에 얹혀있기 때문에 마크 안토니의 친구가 되는 것은 특별히 유익하지 않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마크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에게 준 모든 땅을 헤롯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분은 또한 그를 유대 왕으로 임명하셨고, 로마 총독에 대한 그의 봉사와 충성심에 대해 그에게 더 많은 영예를 주셨습니다. 이제, 진정한 번역의 시기가 시작되기 전에 또 다른 하스모니안이 몰락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헤롯의 아내입니다. 이것은 기원전 29년의 마리암네 자신입니다. 기원전 29년, 헤롯이 아우구스투스 앞에 나타나기 위해 로마로 떠날 때, 헤롯은 마리암네의 보살핌을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경호원 중 한 사람의 손에 맡기고 이 경호원에게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당신을 원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를 죽이려고.

음, 마리암네는 자기 궁전에 앓아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 어쨌든 그 사람은 나를 정말 사랑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경호원 친구는 '오, 그는 당신에게 완전히 헌신적이에요, 얘야'라고 말합니다. 글쎄요, 상상해 보세요. 그가 돌아오지 않으면 당신을 죽이겠다고 나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은 당신에게 헌신적이에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마리암네는 그 생각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돌아왔을 때 그녀는 평소보다 더욱 냉담하게 대했고 그와는 아무 관계도 맺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무슨 일이냐? 나는 그녀가 나를 사랑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의 여동생이 개입하여 말합니다. 그 작은 말괄량이, 당신이 없는 동안 그녀는 당신의 경호원과 함께 간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그 혐의를 믿었고, 그 혐의를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마리암네를 목졸라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녀와 결혼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라니, 좀 슬프고 아이러니한 일이군요. 그러나 마리암네를 살해한 후 그는 폭음에 빠졌고, 술에 너무 취해 거의 자살할 뻔했습니다. 알렉산드라는 지금 자신의 사위, 전 사위를 만나 이 시점에서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 왕국을 차지할 음모를 꾸미기로 결심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음모는 배신당했습니다. 이제 그녀 자신도 처형당했습니다. 하스모니아 왕조의 왕좌를 놓고 남은 유일한 경쟁자는 마리암네가 낳은 헤롯의 아들들뿐이었습니다.

이로써 통합 기간이 종료됩니다. 번영하는 시대를 맞이하여 이 시기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 프로젝트입니다. 헤롯은 건축에 푹 빠졌습니다.

이제 그는 아우구스투스와 일종의 경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로마를 벽돌의 도시로 여기고 로마를 대리석의 도시로 남겨두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유대에도 같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는 유대를 큰 나라로 만들고 예루살렘을 전시 도시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가 위대해지려면 큰 성전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기원전 515년에 건축된 그 작은 건축물을 위대한 왕국에 걸맞는 성전으로 교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글쎄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실제로 이러한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이두매 사람은 유대 성전 건축에 관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 물건을 디자인하기 위해 유대인 장인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디자인을 봤을 때 '아, 그거 나쁘지 않구나'라고 느꼈어요.

아시다시피 나쁘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많은 외국인들이 여기에 와서 이 일을 하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거룩한 일이고, 거룩한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한 일은 목수 훈련을 받은 제사장들을 모아서 모든 일을 제사장들이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글쎄요, 우리는 당신이 이 일을 계속하도록 놔둘 수도 있지만, 우리의 희생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단지 성전을 파괴하려는 음모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우리가 무엇을 할지 말해주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옛 성전을 헐지 않고 새 성전을 지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가 한 일입니다.

그들은 낡은 건축물 주위에 새로운 사찰을 지은 뒤, 낡은 건축물을 해체하여 꺼냈습니다. 이 사원 단지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그들은 산 표면을 완전히 수평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쇄석으로 그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은 그 주위에 옹벽을 세웠습니다. 사원 단지는 실제로 수 에이커에 달했으며, 적어도 그 당시에는 가장 큰 사원 단지였으며,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종교적 목적을 위한 단지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묘사된 방식은 정말 영광스러웠습니다.

지중해를 건너면 바다에서 수 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성전 지붕 꼭대기에 있는 금박에서 핫빛이 비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헤롯에 대해 좋은 말을 한 적이 없는 랍비들은 헤롯의 성전을 보지 않고서는 아름다움을 보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세계의 가장 큰 불가사의 중 하나로 여겨졌으며,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에 재물과 제물을 가져오기 위해 로마 제국 전역에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꽤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가이사랴는 그의 전시 도시가 되었습니다. 정말 위대한 나라에는 정말 훌륭한 항구가 필요하지만 그들은 항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정한 것은 자신의 땅의 부를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멋진 극장이 있는 놀라운 장소, 정말 그리스 스타일의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것을 달리 설명할 방법은 없지만 그가 가이사랴에게 한 일은 엄청난 성취였습니다.

그는 또한 예루살렘 자체를 포함하여 여러 요새를 건설했습니다. 그는 에이커를 재건했습니다. 그리스 군인들을 배치했던 예루살렘 내부의 오래된 요새인 에이커를 기억하시나요? 글쎄, 그는 지금 이것을 재건했습니다.

그것은 물론 Mark Antony의 이름을 딴 안토니아 요새가 되었습니다. 일단 시작하고 프로젝트 이름을 지정하고 중간에 중단하는 것은 다소 어렵습니다. 아마도 이 시점에서 그에게는 약간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름은 Antonia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이커가 재건됩니다. 그는 또한 유대인들에게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영토 내에 있는 그리스 도시들에 많은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큰 성전이 건축되었을 뿐 아니라 헤롯 대왕의 자금과 재정으로 유대와 갈릴리와 그 지역 전역에 이방인의 성전이 많이 건축되었습니다. 그는 요한 히르카누스에 의해 파괴된 사마리아 성을 재건했습니다.

그리스어로 아우구스투스(Augustus)에 해당하는 세바스테(Sebaste)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그리스 도시가 되었습니다. 가이사라는 이곳이 과연 동방 최대의 항구 도시였음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이 모든 놀라운 일들로 인해 로마 제국 전역에서 상당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더 많이 연구하고 헤롯과 그의 가족, 그리고 그의 동료 중 일부가 요즘 로마에서 정말 유명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것이 나를 놀라게 했던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마 풍자가 중 일부는 실제로 헤롯에 대해 농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워터 쿨러에 관해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와 같았습니다. 이봐요, 헤롯이 지금 무엇을 했는지 들으셨나요? 그러나 그가 한 또 다른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 전체에 걸쳐 유대인의 권리와 보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 자신의 법과 관습에 따라 생활하고, 그들의 유대인 정체성을 풍요롭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그 자신도 그것에 대해 조금 의문을 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는 외교 정책과 관련하여 아우구스투스 및 아우구스투스의 다른 장군 중 한 명인 아그리파와 긴밀한 우정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 상담자들인 그리스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는 그들에게서 철학을 배웠다.

그는 이 이교도 사원을 세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습관으로 유대인들을 불쾌하게 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했는데, 여기서 그는 적절하게 목욕을 하고, 유대 관습에 따라 손을 씻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에 다소 평키했습니다. 그가 지은 모든 궁전은 마사다 궁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또 하나의 궁전인 헤로디움(Herodium)을 갖고 있었고, 그 궁전에는 유대 의식에 필요한 정결 의식을 할 수 있는 의식용 목욕탕이 항상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코셔 율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것을 열심히 피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 재치 있는 사람은 자신이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헤롯의 돼지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게 되었으며, 돼지와 아들을 뜻하는 그리스어 단어가 매우 비슷하게 들린다는 사실을 약간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 생각은 헤롯의 돼지들은 잘 먹고 잘 관리되어 있는 반면, 그의 아들들은 죽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속 진행합시다. 그럼 여기서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헤롯 왕국의 동전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이 동전에 대한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여기에 무엇이 빠졌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동전에는 얼굴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화는 물론 오늘날까지도 주화에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스 군주들의 동전을 보면, 그들도 다양한 시기에 신들의 얼굴이나 그들 자신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이 동전에는 얼굴이 없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그것을 새긴 신상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화에 새긴 형상을 새겨 유대인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가이사랴의 유적이 몇 군데 있고 사람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물론 이것만으로는 그 당시 이곳이 어떤 영광을 누렸는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물에서 굳는 콘크리트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꽤 새로운 발명품인데,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멋진 부두 시스템을 갖기 위해 이곳 물 밑에 건설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헤롯 성전의 모형입니다. 여러분도 약간의 인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지만, 515년에 건축된 두 번째 성전보다 훨씬 더 높았고, 심지어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단지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의하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여기서 뒤에서 보면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앞서 말했듯이 단지 자체가 거대하고 아름다웠고 경이로웠습니다. 그럼 기원전 13년부터 기원전 4년까지 그의 국내적 비참함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헤롯은 편집증 때문에 아들 세 명을 더 죽였습니다. 그에게는 10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의 첫 부인 도리스는 평민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가 자기 아들과 함께 추방하여 보낸 사람입니다. 그녀에게는 Antipater라는 이름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다른 아들들이 자신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자신의 왕좌에 대한 또 다른 잠재적인 경쟁자를 제공하기 위해 그녀와 그녀의 아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불러냈습니다.

우리는 알렉산더와 그가 죽인 아리스토불루스의 어머니인 마리암네를 찾았습니다. 두 소년인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불루스는 좋은 로마 교육을 받기 위해 로마로 보내졌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Mariamne II에는 Mariamne이라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헤롯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맬서스라는 이름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녀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 친구도 그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켈라오와 안티파스라는 이름의 두 친구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에 글레오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빌립이라는 사람의 어머니였습니다.

이 소년들 중 몇몇은 나중에 약간의 권력과 통치권을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암네의 두 아들인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불루스는 로마에서 돌아온 후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였다는 사실을 알고도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처럼 아버지에게 반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로메는 그들을 헤롯에게 비방하여 상황을 악화시키기로 결정했고, 결국 헤롯은 그들이 자기들을 해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믿고 두 사람을 처형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의심과 혐오가 커졌습니다. 그는 수많은 요새를 건설했는데, 헤롯은 일종의 껍데기 게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주목할 만했습니다. 그는 항상 누군가가 자신을 죽이려 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제국 주변 여러 곳에 이러한 요새를 건설한 다음 가서 한 요새에서 한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요새로 이사를 갔는데, 전달 주소를 남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기간 동안 항상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헤롯의 생애가 끝나갈 무렵, 그의 아들 안티파테르가 왕위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헤롯을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 놀라운 작은 음모 중 하나였습니다.

안티파테르는 헤롯의 술 맡은 관원장을 불러 포도주에 독을 넣어 달라고 했지만, 결국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이 그 잔을 마시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헤롯을 위한 잔을 마시고 죽자 헤롯은 누군가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당신이 편집증적이라고 해서 모두가 당신을 잡으러 나오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안티파테르는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결국 처형됩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 동안에는 무고한 사람들이 학살되는 사건도 당연히 발생합니다. 예수께서는 아마도 그리스도보다 약 6년 전에 태어나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 봅시다. 그러나 그 때에 헤롯은 모든 사람이 자기를 해할 음모를 꾸미는 줄로 생각하고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명의 현자가, 아니 그 수가 얼마나 많았든지 간에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야, 예루살렘에 새 왕이 있다"고 말했을 때! 알잖아? 헤롯은 그런 것을 누워서 가져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기원전 4년에 죽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는 약 70세이다. 그는 몇 명의 아들을 남겨두고 세 아들 모두 유대의 왕이 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진정되면 그들 중 누구도 유대의 왕으로 임명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모두 유대에 있는 여러 영역의 총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아들 중 하나입니다.

그 중 한 사람이 헤롯인데, 그는 신약성서의 사건들에서 매우 두드러지게 등장합니다. 또한 신약성서에도 이름이 나오는 Trachonitis 북쪽에 있는 Philip도 있습니다. 유대 총독직을 맡은 아켈라오스는 자신의 무능력과 부정 행위로 인해 몇 년 만에 폐위되어 유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설된 요새의 일부입니다. 분명히 헤롯은 헤로디움에 묻혔을 것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는 그들이 최근에 그의 무덤을 발견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들은 그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헤롯은 자신이 임종할 때 유대의 모든 도시에서 가장 높은 귀족들을 모두 경기장에 모으라고 명령했고, 그가 죽을 때, 헤롯은 그 귀족들을 모두 죽여 헤롯이 죽으면 큰 슬픔의 부르짖음이 일어나기를 원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실제로 그런 종류의 계명이 있든 없든 그 계명은 결코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당시 사람들이 헤롯의 행동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자신이 지나간 자리를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사실 외에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여기 서기 4년까지 유대 총독이었던 아켈라오가 있습니다. 서기 39년까지 갈릴리를 다스리던 헤롯

안티파스 도 폐위되어 유배되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예수의 재판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테리아 와 트라코니티스를 다스리던 필리포스가 서기 34년에 죽었고, 실제로는 자연사했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헤롯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는 그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부르나요? 나는 주로 그의 위대한 건축 프로젝트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가 제국 전역에서 유대인의 권리를 확보한 방식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헤롯의 활동과 그의 백성을 위한 그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 덕분에 유대인들은 유대에서 상당히 안전했습니다. 서기 70년 대반란 이후에도, 성전을 잃은 후에도 유대인들은 로마제국에서 계속해서 일부 권리와 일종의 특권적 지위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를 좋아할 필요도 없었고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들은 헤롯이 그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확실히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가 끝날 무렵, 그가 죽을 무렵, 적대감은 무언가가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수십 년이 걸렸지만 결국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안토니 토마시노(Anthony Tomasino) 박사와 예수님 이전의 유대교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13회, 헤롯 대왕입니다.